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홍콩,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은 듯
- ◇ 美-中 '1 단계' 무역합의, 연내 타결 안될 수도 - 무역계 소식통들
- ◇ (초점)-거세지는 '셀 코리아' 행렬..수급 이벤트 지나면 달라질까
- ◇ (초점)-당국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 연말 단기채권 시장 '태풍의 눈' 되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지역의회 선거 투표에 참가하려는 유권자들이 길게 늘어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아티스트 페라왕메타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22일 종가 기준)

| 원화 % | 최종 | 주간(%) | YTD(%) | 2018(%) | 달러 대비 % | 최종 | 주간(%) | YTD(%) | 2018(%) |
|---------|----------|---------|---------|----------|------------|-----------|--------|---------|----------|
| 달러 대비 | 1,178.9 | -1.0% | -5.4% | -4.1% | 유로 | 1.1022 | -0.3% | -3.9% | -4.4% |
| 100엔 대비 | 1,085.2 | -1.5% | -6.4% | -6.9% | 엔 | 108.64 | 0.1% | 0.8% | 2.8% |
| 유로 대비 | 1,299.9 | -1.2% | -1.8% | 0.2% | 위안 | 7.0287 | -0.1% | -2.2% | -5.3% |
| 위안 대비 | 167.49 | -1.0% | -3.4% | 1.3% | 해외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8(%) |
| 한국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8(%) | 다우존스 | 27,875.62 | -0.5% | 19.5% | -5.6% |
| 코스피 | 2,101.96 | -2.8% | 3.0% | -17.3% | 나스닥 | 8,519.89 | -0.2% | 28.4% | -3.9% |
| 코스닥 | 633.92 | -5.2% | -6.2% | -15.4% | S&P500 | 3,110.29 | -0.3% | 24.1% | -6.2% |
| 국내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8(bp) | MSCI APxJP | 523.12 | -0.4% | 9.6% | -16.2% |
| 국고채 3Y | 1.456% | -5.7bp | -36.1bp | -31.8bp | 미국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8(bp) |
| 국고채 5Y | 1.541% | -6.3bp | -34.3bp | -45.9bp | 미국채 2Y | 1.626% | 1.1bp | -87.2bp | 60.7bp |
| 국고채 10Y | 1.687% | -10.3bp | -26.1bp | -52.1bp | 미국채 10Y | 1.771% | -6.5bp | -92.0bp | 28.0bp |
| 국제상품가격 | 최종 | 주간(%) | YTD(%) | 2018(%) | CDS프리미엄 | 최종(bp) | 주간(bp) | YTD(bp) | 2018(bp) |
| 유가(WTI) | 57.77 | 0.1% | 27.2% | -24.8% | 한국 5Y | 27.31 | 0.69 | -10.75 | -13.74 |
| 금(현물) | 1,462.04 | -0.3% | 14.0% | -1.5% | 일본 5Y | 20.88 | -0.04 | -0.91 | -3.34 |
| TR상품지수 | 2,400.17 | 0.6% | 1.2% | 0.0% | 중국 5Y | 39.14 | 1.52 | -27.33 | 16.96 |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1 월 25 일(월)>

- 기재부,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26 일(화)>

- 한은, 10 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27 일(수)>

- 한은, 11 월 소비자자동향조사(06:00)
- 통계청, 9 월 인구동향 및 10 월 국내인구이동 추이(12:00)
- 한은, 3/4 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28 일(목)>

- 한은, 11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한은, 10 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29 일(금)>

- 통계청, 10 월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
- 한은, 수정 경제 전망(13:3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1 월 25 일(월)>

- 일본, 9 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14:00)
- 미국, 10 월 전미활동지수 (22:30)

<26 일(화)>

- 미국, 11 월 달러스런은 제조업지수 (00:30)
- 미국, 10 월 건축허가 수정치 (22:00)
- 미국, 10 월 도 · 소매재고잠정치 (22:30)
- 미국, 9 월 FHFA 주택가격 (23:00)
- 미국, 9 월 케이스실러주택가격 (23:00)
- 미국, 11 월 소비자신뢰지수 (자정)

<27 일(수)>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
- 중국, 10 월 산업이익 (10:30)

- 미국, 주간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3 분기 기업이익잠정치 (22:30)
- 미국, 10 월 내구재주문 (22:30)
- 미국, 3 분기 GDP 수정치 (22:30)
- 미국,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2:30)
- 미국, 10 월 개인소득 (자정)
- 미국, 10 월 잠정주택판매 (자정)

<28 일(목)>

- 일본, 10 월 소매판매 (8:50)
- 유로존, 10 월 총유동성(M3)증가율 (17:00)
- 유로존, 10 월 가계대출 (17:00)
- 유로존, 11 월 기업환경지수 (19:00)
- 유로존, 11 월 경기체감지수 (19:00)
- 유로존, 11 월 소비자신뢰지수확정치 (19:00)
- 미국 휴장

<29 일(금)>

- 일본, 11 월 도쿄근원소비자물가지수(CPI) (8:30)
- 일본, 10 월 실업률 (8:30)
- 일본, 10 월 산업생산잠정치 (8:50)
- 일본, 11 월 소비자신뢰지수 (14:00)
- 일본, 10 월 주택착공 (14:00)
- 유로존, 11 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9:00)
- 유로존, 10 월 실업률 (19:00)
- 미국, 11 월 시카고 PMI (23:45)
- 일본, 10 월 건축주문 (미정)
- 중국, 11 월 NBS 제조업(비제조업)PMI (30 일 오전 10: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달러/원 환율이 주춤주춤 올라와 어느새 1180 선을 굳히려 하고 있다.
- 이번 주 환율은 뚜렷하게 하락 요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추가 상승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60 원대 초반-1180 원대 초반이다.
- 이번 주에는 MSCI 지수 비중 조정 관련 수급 이벤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과 수정 경제 전망 발표 등 국내 정책 이벤트,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홍콩 정정 불안과 미-중 무역 협상 지연 등 모두 환율 상승에 우호적인 재료들이 가득하다.
- 이번 주 이벤트 가운데 MSCI 신흥국 지수 비중 조정 관련 달러 매수는 추가적으로는 환율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서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 더욱 중요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주 후반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과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이 2명이나 있었다는 점, 일부 해외 및 국내 경기 지표가 둔화세 진정 조짐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하지만, 이번엔 발표가 예정된 수정 경제 전망 자료에 환율 방향을 바꿀 만한 뚜렷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최근 환율 상승은 어차피 경기 요인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발언들과 홍콩 정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MSCI 지수 비중 조정이라는 수급 요인에 주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등과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주초에는 국고채 3년물, 국고채 30년물 입찰 등이 대기하고 있어 조심스런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통해 수급 동향을 파악한 후 포지션을 결정하는 기관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29일로 예정된 금통위 본회의에서는 금리인하 소수의견 여부가 관건이다. 이일형, 임지원 위원이 매파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비둘기파가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연말 장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한은은 27일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8일에는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를 발표한다. 같은 날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내놓는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칼럼)-홍콩,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은 듯

(※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홍콩의 시위가 시작된 지 6개월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애초에 홍콩에 대한 통치권을 돌려받은 것을, 특히 '일국양제'로 통치하려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주 전투경찰과 시위대 학생들이 홍콩이공대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양측 모두 그럴듯한 출구가 없는 대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두시위에 나섰던 많은 이들에게 시위 학생들의 저항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민주적인 개혁 가능성을 열어두고 홍콩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중국에 있어 시위대에 양보하는 것은 70여년간 지켜온 공산당 체제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시위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과거 영국이 점령했던 홍콩은 언론 취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훨씬 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탄압에 상당한 제약을 느끼고 있다.

홍콩내 탄압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족을 탄압할 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번주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당국은 관리들에게 본가에 돌아와 가족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끌려간

것을 알게 된 위구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은 연설문에서 관리들에게 최근 연이은 공격을 자행한 이슬람 무장세력 진압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대테러 진압부대

홍콩에서도 중국의 발언 수위는 높아졌고, 실탄을 사용하는 등 무력 사용 역시 강화됐다. 이번주 초 운동복을 입고 거리를 청소하는 대테러 부대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은 무력 진압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나 기타 언론에 대한 감시 체계가 부족한 개방적 사회인 홍콩의 특성 때문에 당국은 중국에서, 특히 위구르 자치구에서처럼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

사실 현재 대립 상태의 특징 중 하나는 당국과 시위대가 모두 홍콩내 시위가 중국 본토, 특히 상하이와 선전 등 첨단산업이 발달한 대도시들에서 유사한 시위가 있었다면 처리되었을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도시가 홍콩에서 영감을 받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홍콩의 아주 기초적이고 통제를 많이 받는 민주적 시스템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취약한 자유라도 되찾고자하는 홍콩 시민들의 절박함이 시작부터 시위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추진한 홍콩 거주자들의 본토 송환을 허용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은 거의 모든 홍콩인들이 반대할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법안은 이후 보류되었지만, 중국 당국이 이달 예정된 홍콩의 선거를 중단시킨다는 소문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행정 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시위대에 또다른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높은 리스크

양측 모두에게 리스크가 크다. 홍콩의 '일국양제' 원칙은 2047년 만료된다. 10년 전만 해도 홍콩과 본토의 많은 이들은 그 때쯤이면 중국이 좀 더 민주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했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홍콩의 시위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자유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일부는 더 나아가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사태로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통치하고자 했던 외교적 노력에 이미 손상을 입었다. 그리고 더 잔인한 탄압은 해외에서 보는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대중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중국 본토내 불안도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홍콩을 비롯해 칠레와 레바논, 이란, 인도 등에서도 각자 나름의 이유로 시위가 일어났는데, 대부분 구체적인 촉매는 다르지만, 그 뒤에는 특히 일자리와 주택, 그리고 더 폭넓은 기회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있다. 60-70년대 등 과거에는 경기 회복세와 새로운 일자리가 시위 악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의 경기 사이클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홍콩은 시위로 인한 경기 하강을 겪고 있고, 학생들은 특히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홍콩 이외의 유일한 지역인 본토로 이주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약간이라도 의미있는 양보를 해주면 모든 것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위대 역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美-中 '1 단계' 무역합의, 연내 타결 안될 수도 - 무역계 소식통들

워싱턴 (로이터) - 중국이 광범위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미국 정부도 이에 맞서 요구사항을 확대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의 1 단계 무역합의 타결이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무역 전문가들과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중 1 단계 무역합의는 금융시장은 안정시키는 한편 양국 정상들이 쉬운 승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할 제한적인 합의가 될 예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1 단계 합의가 최장 5주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 주가 지났지만, 타결은 아직도 요원하고 협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 전문가들과 소식통들이 로이터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 일 "중국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stepping up)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거둬들여달라는 중국의 요청에 응할 경우 1 단계 무역협약은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무역전쟁 중 도입된 관세의 철폐가 어떠한 합의에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 확대, 중국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접근성 개선 약속, 지식재산권 보호 약속이 관세 철폐를 보상으로 요구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두 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 철폐와 12 월 15 일 부과 예정인 관세 취소에는 중국 측의 더 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 중국 연구원은 "대통령은 중국과의 더 큰 합의 옵션을 원한다. (10 월에 발표된) 작은 합의보다 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의 철폐에 동의할 것인지는 그것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기존 관세를 향후에 사용할 레버리지로 남겨두고 있고, 일부 백악관 고문들은 중국이 대규모의 구체적인 규모의 농산물 구입에 합의하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팜벨트(farm belt) 선거구에 도움이 되고, 또 중국에 대한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홍보할 수 있어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주 유권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특정 시한 내에 구체적인 규모의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피하고 있고, 수급에 따라 합의 규모를 결정하길 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자제품과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등 중국산 제품 1560 억 달러어치에 관세가 부과되는 12 월 15 일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자문역을 역임한 크리스찬 위튼 국가이익센터 전략 및 무역담당 시니어 펠로우는 "협상이 정말 잘 된다면 관세 인상이 유예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관세를 시행하고, 게임을 내년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20 일 이메일에서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1 단계 합의 문안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에 대한 진압도 합의 타결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만이 남아 있는데,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 월 중국산 제품 1250 억달러에 대해 부과한 15% 관세를 철폐하고, 앞서 2500 억 달러어치에 부과된 25% 관세도 완화해주기를 원한다.

한 미국 소재 무역 전문가는 지난 10 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과 같이 중국의 연간 미국산 농산물 구입 규모가 400-500 억달러가 되려면 2018 년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도입된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주말 양국 간의 전화협상 내용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이전 이슈 등을 담지 못한 '작은' 무역협약에 이처럼 양보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로이터에 아직도 수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밝힌 일부 중국 및 무역 전문가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 일 협상팀이 중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화통화 후 라이트 하이지 대표와 므누신 장관, 류허 부총리는 모두 협상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언론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타임즈의 후시진 에디터는 20일 트위터에서 "중국과 미국이 곧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고 믿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초점)-거세지는 '셀 코리아' 행렬..수급 이벤트 지나면 달라질까

서울 (로이터) 박예나 · 최하영 기자 -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타결이 지연되면서 기대가 우려로 급전환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코스피는 올해 들어 약 2% 상승해 MSCI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주가지수 상승폭을 조금 웃돌았다. 하지만 21일 하루 만에 코스피는 최대 1.6%까지 급락해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외국인들은 21일까지(오후 1시 기준 약 3천억원 순매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1거래일째 이탈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지난 8월 중순 이후 최장기간인 데다 누적 순매도 규모 또한 1.6조원에 달한다.

연내 미-중 무역 합의 불발 전망에 수급 여건마저 녹록지 않게 전개되면서 시장 내 경계수위는 한껏 올라가고 있다.

▲ 8월 데자뷰?

지난 7일부터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005930.KS가 약 5000억원으로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셀트리온 068270.KS이 1300억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이를 두고 우선 시장 전문가들은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A주 비중

확대와 이에 따른 한국 비중 축소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주요국 외국인 주식투자 동향을 보면 외인 자금이 최대로 유입된 곳은 인도(13.1억달러)였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뚜렷하게 자금이 유출(3.4억달러)됐다.

사실상 MSCI 신흥국지수 비중 조정 시기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외인 매도세는 두드러졌다. 1차 조정 시기였던 지난 5월 외인들은 국내 주식을 약 2.5조원어치, 2차였던 8월에는 약 2.3조원어치 각각 팔아치웠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인 매도세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증시에서 주로 한국을 팔고 있는데 MSCI 리밸런싱 관련해 한국 쪽에서 선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1조원 이상 액티브 펀드에서 선제 매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자는 MSCI 편출입 산정 기준일(27일)을 전후해 지수 추종 글로벌 패시브 관련 외인 자금이 약 5천억원이 이탈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수급 부담 걸히면 달라지나?

문제는 MSCI 리밸런싱 관련 일시적 수급 악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외인 귀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데 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외인 보유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20일 현재 약 35%로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간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전망을 비롯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반도체 업종 지수.KS41는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다. 하지만 무역 협상 조기 타결에 대한 비관론이 재차 확산하는 가운데 MSCI 관련 수급 악재까지 가세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25%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는 거세지고 있다.



(반도체업종지수,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원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 가격이 빠르게 올랐는데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2021년 실적 기대까지 끌어온 상황"이라면서 가격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말 대비 20% 넘게 상승했다.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은 11배를 넘어서는 등 이래저래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편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이달 20일 기준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수출은 23.6% 급감해 뚜렷한 수출 회복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 (Full Story)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MSCI(재조정)와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다 아람코 상장에 따른 인덱스 비중 변화 가능성에 따른 수급 부담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수출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듯 코스피와 한국 수출 지표 간 상관관계가 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수급 마찰이 겹치더라도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외면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점)-당국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 연말 단기채권 시장 '태풍의 눈' 되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한 금융당국 조치가 연말 채권시장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추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과 연계된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중단할 경우 증권사의 관련 북(book) 규모가 축소되며 단기 채권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신탁판매 규제, 증권사에도 후폭풍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난도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개념으로, 가치평가 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등 파생이 내재된 대부분의 상품이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다.

이번 규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비중이 큰 은행의 신탁 판매로 제한돼 있지만 결국 해당 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한 증권사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가뜩이나 지난 8월 DLF 손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76조 1022억원에 달했던 ELS 잔액은 이달 19일에 69조 9252억 원까지 줄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발행 잔액이 70조원을 밑돈 것이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ELS 조기상환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헐거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증권사 파생결합상품 판매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가 시행될 경우 최대 이슈는 바로 최근 몇 년간 최고 인기상품인 스텝다운형 ELS 일 것"이라며 "이론상으로 100%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스텝다운형 ELS 역시 고난도 투자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에서 받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 농협은행이 팔아주는 DLS와 ELS 규

모가 엄청나다"라며 "금융당국의 규제가 도입된 후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사 파생 원금 복 조정 가능성, 채권시장 '폭풍의 눈'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축소에 따른 증권사의 원금 복 조정 가능성이다. 갑작스럽게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줄어들 경우 증권사가 원금 복을 통해 보유했던 채권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국내 단기채권 시장 수급의 큰 축을 담당했던 증권사의 매수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연말 자금 환매 우려 등이 잠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B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제 은행에서 원금 비보장형 상품은 판매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원금 보장형 상품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리테일 기반으로 만기가 길지 않고 마진이 나오고 쿠폰을 맞출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ELS 시장 규모가 커질 일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C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규제가 단기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국채, 통안채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6개월, 9개월 남은 회사채를 들고 있는 증권사들은 빨리 팔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 달에 4~5조원 발행됐던 ELS가 그동안 단기물 수급을 지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게 사실인데, 이게 위축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이제 연말이 오기 때문에 캐리 수익이 눈높이에 맞는다고 막 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D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예전에 신용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당국이 규제에 나선 여파로 BBB 등급 회사채 시장이 현재 거의 고사된 상태"라며 "이번 파생결합증권 규제 역시 시장 전반의 거래 위축과 함께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BS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자산시장 종사자들에게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이 문제가 심리 위축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규모 축소는 불가피..금융당국 '불확실성 해소 노력' 필요

일부에선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과하다고 지적한다.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는 금지됐지만 공모펀드 판매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실무상의 예외를 얼마나 인정해줄지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권사가 ELS 등의 설계를 원금 보장형 수준으로 변경하면 은행에서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은행이 공모펀드로 설정하고 재간접펀드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파생결합상품의 전반적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시장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증권사의 상품 운용 복 축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한시라도 빨리 불확실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2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의 C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밀도 끝도 없는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막상 은행 창구의 의사결정이 끝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 적응이 끝난 후에 판매되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안개 국면이라 일단 상황이 투명해질 때까지 현금 확보에 나서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